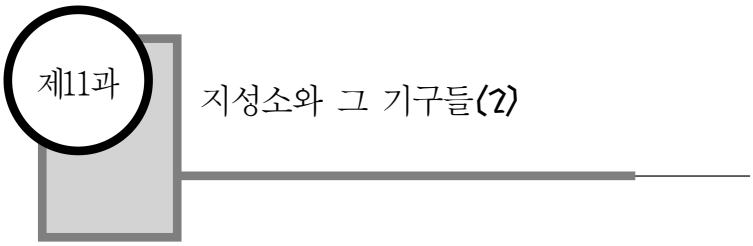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시작하는 말: 지성소의 기구로서 속죄소와 그 제도의 의미를 연구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이요 동시에 주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성도의 성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과에서는 언약궤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십계명에 대하여, 그것이 구속의 어떤 측면을 계시하고 있는지 연구하려고 한다.

1. **언약궤는 속죄소의 밑바탕으로 십계명을 넣어 두는 궤이며 조각목(皁角木)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계명의 원칙으로 된 것을 보여준다.**
   [출 25:10,11]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11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출 25:16,21]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21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시 89:14]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시 97:2]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공의"와 "공평"은 똑같이 "미쉬파트(fP;v]mi)"를 번역한 말이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비를 넣고 그 위에 시은좌를 올려놓은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2.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보좌의 형상인 언약궤 안에 십계명 판을 넣게 하셨다.**
   [시 119:172]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롬 7:12]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3.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가 영영한 것처럼 그 기초인 하나님의 계명도 영영하고 폐할**

수 없다.

[히 1: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시 111:7,8]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한 것이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것이다.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궁전과 그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법이 있고 이 법을 어긴 죄인의 죄의 속죄를 성소에서 감당하고, 그 속죄를 이룬 자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법의 정신과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4.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거나, 반역하면 정죄 당하게 되는데 최초의 범죄자 사단도 그렇게 정죄 되었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이다.

[딤전 3: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시 119:85]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사 14:12-14]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 이것이 교만이다.

[벧후 2: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요일 3: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롬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좇지 않으면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좇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루시퍼가 바로 이 교만한 자로 정죄 받은 것이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5. 하나님의 계명 곧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것이며, 그것은 새 언약의 상태에서 성도의 마음에 새길 언약의 내용을 모형을 통해 밝히신 것이다.

[신 4:13]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출 34: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

하셨더라.

[출 32:15,16]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16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출 31:18]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신 9:10]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네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6. 꼭 같은 계명을 하나님께서 두 번 모세에게 주셨는데, 백성이 언약을 어김으로 첫 번 것을 깨뜨리고 다시 기록하여 주셨다.

[출 32:19]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출 34: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2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3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출 34: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신10:1-5]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2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3 내가 싯딤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4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5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7. 계명을 두 번 받은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하신 두 가지 일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친히 만드신 것과, 아담이 언약을 범하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인간되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창 1:26-28]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3:9-1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12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호6:7]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롬 8:3,4]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출 34:28-35]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1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33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34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하셨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이 아담을 친히 만드셨다. 첫 돌비는 이것을 표상한다. 둘 째 돌비는 모

세에게 만들어 오라고 하셨다. 그것은 구주가 사람에게 탄생하여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표상한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온전히 지켜졌고 그래서 영광의 광채가 빛난 것이다.

8. 계명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것은 그가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시는 행사는 언제나 진실과 정의이며,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이 행복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시 111:7,8]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8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신 10:13]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시 119:18]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소의 첫 칸이 하나님 정부의 행정적인 면을 나타낸다는 것을 공부하였고, 둘째 칸 곧 지성소는 사법적인 면을 나타낸다는 것도 공부하였다. 하나님의 정부는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통치한다는 것을 보좌의 기초를 통하여 계시하신 것이다. 십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을 인간 사회에 구체화 한 것이다. 그것이 천사들 세계에는 천사들에게 알맞도록 구체화되었을 것이다. 사랑은 대상을 따라 가장 적합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9.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계명을 폐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흔들려는 뜻이 되며,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영원히 지킬 일을 특별히 행할 때가 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시 119:96]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시 119:126]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을 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좌를 폐하는 것과 같다. 물론 하나님의 보좌를 폐할 수 없다.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일 뿐이다. 그것은 곧 우주적 반역이다. 예수를 믿는 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리면 되겠는가. 아말렉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든 족속이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와 영원히 싸우실 것이다. 과연 하나님을 이길 것인가? 결코 아니다. 자기 존재와 생명을 영원히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그 존재를 잃게 될 것이다.

마치는 말: 언약궤의 제도는 하나님의 보좌의 제도이며 십계명은 결코 폐할 수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또한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원한 행복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과 의라는 것을 나타낸다. 의와 공평은 평화와 행복의 기초가 된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눈을 열어 이 기이한 주의 법의 섭리를 밝히 깨닫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자.